

광주·전남 수출 '훈풍'에 무역흑자 27.8% 꺾춤

반도체·차·석유제품 호조에 18억달러 흑자

전남 수출 '44억 달러' 2개월 연속 회복세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30% 이상 급증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돼 전남의 무역흑자 규모가 11억달러를 넘어섰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7% 증가한 59억 8500만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

71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8억1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무역수지 흑자 14억 1900만달러 대비 27.8%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수출은 12.3% 증가한 155억9300만달러, 수입은 7.6% 증가한 116억47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29.3% 증가한 39억4600만달러 흑

구분	2025년			2026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4.544 (△12.6)	13.881 (△17.1)	4.865 (7.3)	5.985 (31.7)	15.593 (12.3)	
수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125 (△21.3)	10.829 (△10.2)	3.559 (2.0)	4.171 (33.5)	11.647 (7.6)	
무역수지	1.419	3.052	1.306	1.814	3.946	

단위: 백만 달러, %

자를 기록했다.

3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한 15억8800만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84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수출은 반도체(57.1%), 수송장비(16.3%) 등이 증가한 반면 기계류와 정밀기기(-2.0%), 고무타이어 및 튜브(-29.8%), 가전제품(-30.5%)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 동남아(50.9%), 유럽연합(71.8%), 중남미(40.3%)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37.8%), 중국(-8.6%)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26.8%), 기계류(114.7%), 가전제품(8.7%), 화공품(6.2%) 등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두달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지난 2월 전년동월 대비 7.3% 증가한 34억6000만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달에도 43억9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7.1%나 급증했다.

수입은 35.7% 증가한 32억6800만달러

로, 무역수지는 41.5% 증가한 11억2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석유제품(197.4%), 화공품(5.9%), 기계류와 정밀기기(63.5%) 등이 증가했고 철강제품(-7.3%), 수송장비(-22.2%)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중국(23.3%), 일본(43.0%), 동남아(78.9), 미국(31.6%) 등은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15.9%)은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55.2%), 석유제품(30.8%), 철강(4.1%), 석탄(15.9%), 화공품(21.4%) 등이 증가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복지시설에 '재기부'

임직원 1억2000만원 동참 상생·나눔 선순환 실현

광주은행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다시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했다.

광주은행은 15일 정일선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부를 통해 받은 10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역 사회 복지시설에 재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은행은 지난 3~4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참여기간을 운영해 약 1억2000만원을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



정일선 광주은행장(오른쪽)과 박만 노동조합위원장이 답례품 재기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 재기부를 통해 지역 상생과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나눔을 통해 지

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생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 생산·소비·건설·수출 '방긋'

지난 2월 광주 제조업 생산과 건설투자는 감소했지만, 소비와 수출은 증가했다. 전남은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의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기장비(-30.3%), 자동차·트레일러(-7.3%) 등이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6.2% 감소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가 늘었는데 전자전기(29.3%)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이는 지난해 11월(56.5%), 12월(27.5%), 지난 1월(29.5%)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다.

수입도 전자전기(13.5%)를 중심으로 10.8%가 증가했다.

건설투자에서 건축착공면적은 상업용(-76.6%)과 공업용(-68.6%)이 대폭 줄어 들면서 전년 동월 대비 54.7% 감소한 것

로 집계됐다. 건축허가면적은 46.4% 감소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각각 11.1%, 16.4%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남은 제조업 생산이 제1차 금속(1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0.2%)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다.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는데 선박 등 기계류(147.5%)의 급증이 상승을 이끌었다.

수입은 원유(-12.1%)를 중심으로 5.2% 감소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건축착공면적이 상업용(36.2%)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4%가 늘고 건축허가면적은 65.4% 증가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코스피, 증등전 후 첫 6000선 종전 기대감에 외인 매수 우위

코스피가 15일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에 증등 전장 발달 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60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3.85p(2.91%) 상승한 6141.60으로 출발해 123.64p(2.07%) 오른 6091.39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코스피는 전날 장중 6000선을 재돌파한 데 이어 증등 전장 발달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월 27일(6244.13)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도 6000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520억원 을 순매수하며 이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9384억원, 20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5603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0원 내린 1474.2원을 나타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이를 내로 다시 대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사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국내 증시도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 반도체 대형주들 중심으로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2.18% 오른 21만1000원, SK하이닉스는 2.99% 뚀 11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17만30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0.55p(2.72%) 상승한 1152.43에 장을 마쳤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경제자청-광주국세청-특허진흥원, 전략산업 육성

'원스톱 지원' 업무 협약 경영·세무·혁신성장 지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광주지방국세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15일 광주경제자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선석기 광주경제자유 구역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명성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산업 지원과 특허 정보 제공, 세무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광주경제자청 자유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경제자청은 입주기업의 기술 수요와 경영·세무·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각 기관에 전달하는 통합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국세청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기술진흥원은 특허 조사·분석과 특허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은 물론, 특허 분야 기술 교육·훈련 지원을 맡는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 기업 육성과 기술·특허 경쟁력 강화, 세계 지원이 맞춤형 지원 구조를 구축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광주지방국세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15일 광주경제자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핵심 전략산업 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합동 컨설팅 정례회, 기업 애로사항 공동 대응을 위한 전담 창구 및 핫라인 운영 등 후속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 홍보활동도 병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 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R&D 세

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세계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세무 부담은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이 제갈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노동연구원, 지역별 여성 고용 공간 분석

호남 여성 노동시장, 좁고 고요하다

일자리 부족·청년유출 심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여성의 취업 환경이 남성보다 훨씬 좁게 형성돼 있으며, 특히 호남권에서는 여성 일자리 부족과 청년 여성 유출이 맞물리며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자료 '지역노동시장권의 변화와 여성고용'(고영우·신영민, 2025)에서 2010년과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의 공간적 범위와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 164개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남성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 기준 노동시장권 138개보다 26개 더 많은 수치다. 노동시장권의 수가 많을수록 각 지역의 권역이 좁게 쪼개져 있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여성이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주거지 인근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조적 제약을 반영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취업자 기준 12개 노동시장권이 설정된 반면, 여성만 보면 28개로 두 배 이상 세분화돼 있다.

학력과 연령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고졸 이하 여성의 노동시장권은 191개로 매우 좁게 형성된 반면, 전문대졸 이상 여성은 128개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통근하고 있었다. 20~30대 청년 여성(144개)은 40~50대 중고령 여성(168개)보다 더 넓은 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일자리 탐색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역은 호남권이다. 2020년 기준 호남권의 여성 지역노동시장권은 38개로, 6개 광역권 중 가장 많다. 권역 내 대부분의 지역이 독립적인 단일 노동시장으로 쪼개져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지역 간 노동력 이동이 활발하지 않고 각 지역이 고립된 소규모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10년간 얼마나 할 변화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개발, 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여성 노동시장권의 재편과 통근시간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호남권에서는 지역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나 통근방향·통근시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정성균과 담양군이 광주 산업단지 개발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남성을 포함했을 때보다 여성에 대한 영향은 눈에 띄게 적었다. 전주·나주 혁신도시 역시 남성 고용에 비해 여성 고용 파급 효과가 작았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호남권 일자리 자체가 여성 고용 비중이 낮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역외 이주, 고령화로 인한 기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우선 고학력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혁신 제조업 분야의 취·창업 지원을 지원하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 간 연계 등을 통해 인구유출과 미스매치를 동시에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단위의 연계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반면 저학력·중고령 여성에 대한 지원은 기초지자체 단위, 마을 단위로 내려가 세밀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태은 기자 nab@gjdream.com